

退溪의 斥異論 小考**

李 雲 九*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禪學 비판 |
| II. 氣哲學 비판 | V. 맺는말 |
| III. 陽明學 배척 | |

I. 머리말

퇴계 이황은 16·7세기 이씨 왕조의 정치사회에 있어서 정통적 성리학을 대표하고 있던 철학자인 동시에 교육의 실천가이었다. 오늘에 이르러 그의 학풍이 斯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그가 정통사상의 입장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당시 氣哲學的인 세계관의 한 흐름을 철저히 반대하고 主理論과 견해를 달리하는 그 밖의 어떤 사조도 이를 모두 異端의 이론이라고 단정하여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튼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일찍이 퇴계는 그 자신이 학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목적을 「破邪顯正」 하려는 데에 있다고 선언한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破邪의 뜻은 일체의 「邪教」를 타파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의 견해와 같은 처지의 主理論이 아닌 모든 다른 학설들을 가리키고 있다.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3호(1982) 게재논문

특히 양명학과 불교의 禪學이 그 대상의 주가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이 있어서는 花潭 徐敬德과 그 제자인 李球나 李恒을 비롯하여 盧守愼의 이론들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전개시켰던 것이다.

또한 「顯正」이라고 말한 의미는 靜菴 趙光祖가 理一元論的 세계관에 입각하여 至治主義 즉 愛民하는 그의 정치사상을 구현하려다가 실패한 이후 계속 위축 一路에 놓여 있던 사림과 성리학의 정통 학풍을 다시 진작시켜 보겠다고 하는 운동의 일대 표어였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 색채도 다분히 부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斥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의 적극적인 의지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제 그 방대한 퇴계의 저작 전편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던 「破邪顯正」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살펴 보고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정력적으로 대처하여야 했던 이단 배척에 관한 이론, 그리고 실제로 그 배척의 대상에 올라 있던 이단의 사상들이 과연 어떤 이론의 것이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퇴계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한다.

II. 氣哲學 批判

1

퇴계 이황은 「理」와 「氣」가 절대로 두 개의 다른 것이라고 파악하는 주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성리학의 정통적인 입장에 서서 花潭 徐敬德의 氣一元論的 세계관을 반대하였다. 서경덕이 그의 <理氣說> 가운데 일찍이 「理」가 「氣」 속의 一事物이므로 「氣」밖에는 「理」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動·靜의 원인을 가리켜 「太極」이라 하며, 또한 그것을 「理」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理」가 결코 「氣」를 떠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¹⁾ 강조한 바 있다.

퇴계는 이에 대해서 「理」가 「氣」의 주재이며 「氣」는 「理」의 재료이다. 두 개가 본래부터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만 하나의 사물로 한데 섞여 있는 것일뿐이다²⁾ 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非理氣爲一物辯證>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하여 퇴계는 서경덕이 「理」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形器의 「氣」一邊에만 빠지게 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성현의 학설과 부합되는 바가 하나도 없는 「誤謬」³⁾를 범하였다고 한다. 그 「誤謬」은 바로 「氣」를 「性」 아니면 「理」라고 잘못 인식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퇴계가 南時甫에게 보낸 8통의 答書 가운데 「花潭은 氣質이 순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방탕하고 그 학문이 고매한 것 같으나 사실은 雜駁하다」고 비난한 글이 있다. 또한 『花潭의 소견은 대단히 정밀하지가 못하며 그 저술한 諸說을 볼 때 어느 한 편이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럼에도 문인들이 그를 추대하고 존경하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평하고 있다.⁴⁾

퇴계는 특히 서경덕의 氣不滅論을 반대하였다. 서경덕이 「氣」의 일면에 관해서만은 그것을 숙지하고 있었으나 그의 학설이 「理」가 바로 「氣」라고 보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개탄하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경덕의 학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氣」가 고금을 통하여 常存不滅하는 物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나 사실은 그것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불교적인 견해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

- 1) 「氣外無理 理者氣之主宰也 所謂宰非外來而宰之 指其氣之用事能不失所以然之正者 而謂之宰」(화담집 卷2理氣說)
- 2) 「夫理氣之主宰也 氣理之材料也 二者固有分矣 而其在事物也 則固混淪 而不可分開 但理弱氣強 理無朕而氣有跡 故其流發見之際不能無過不及之差」(퇴계집 卷16 附奇明彥 非四端七情分理氣辯)
- 3) 「夫以孔周之旨既如彼 程朱之說又如此 不知此與花潭說同耶異耶…然嘗試以花潭說撥諸聖精說 無一符合處…後之學者 又豈可踵謬襲誤 相率而入於迷昧之域耶」(퇴계집 권41 非理氣爲一物辯證)
- 4) 「花潭所見殊 未精密 觀其所著諸說 無一篇病通…而其諸門人推尊太不近情」(퇴계집 권25 答鄭子中講目)

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⁵⁾

퇴계는 계속해서 서경덕의 氣不滅論을 반대하기 위한 논변을 전개시켰다. 그에 의하면 서경덕이 「氣」가 集散을 거듭하면서 항상 실재하며, 그것이 흩어진다고 하여도 천지의 「氣」와 뒤섞여서 조금도 다른 틈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다. 「理」는 본래부터 항상 실재하는 것이지만 「氣」는 그것이 모여가지고 형체를 이룸으로써 실재하는 것이며, 일단 그것이 흩어지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無인 것인데 어떻게 하여 항상 실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⁶⁾ 반박하였다.

처음부터 서경덕은 무한한 공간에 가득 차있는 물질적인 「氣」를 세계 최초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나 지각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연의 모든 사물이 「氣」가 응집 결합하는 일종의 형태에 불과하다⁷⁾고 보았던 것이다. 그 최초의 존재형태를 일러 「太虛」라고 설정하고 「太虛」의 물질적 성격을 강조하여 「太虛卽氣」라고 논증까지 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太極卽理」라고 보는 朱子の 견해를 지지하고 세계 최초의 근원이 「氣」라고 말한 서경덕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쳤다. 그리고 서경덕이 「氣」의 일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理」의 일차적 실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⁸⁾ 비난하였다. 다시 말해서 퇴계는 「理」와 「氣」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서경덕이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太虛卽氣」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5) 「因思花潭公所見於氣數 一邊路熟 其爲說未免於認理爲氣 亦或有指氣爲理者故 今諸子亦或紐於其說 必欲以氣爲亘古今當存不誠之物不知不覺之境 已陷於釋氏見諸公固爲非矣」(퇴계집, 권14 答南時甫)

6) 「氣之散也 自然消盡 而泯滅 不待必與天地之氣混合無間 而後就泯也」(퇴계집 권25 答鄭子中講目)

7) 「氣之淡一清虛者 彌漫無外之虛 聚之大者爲天地 聚之小者爲萬物」(화담집 권2 鬼神死生論)

8) 「按朱子嘗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 蓋理動則氣隨而生 氣動則理隨而顯」(퇴계집, 권25 答鄭子 中別紙)

를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만일 서경덕이 「氣」가 생하는 「虛」를 가리켜 그것을 「理」자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⁹⁾ 말한 바도 있다.

한편 수족의 동작이나 보고 듣고하는 우리의 감각작용을 일러서 서경덕이 「氣之妙處」라고 표하였던 점에 대하여 퇴계는 역시 그것을 「理」에 귀속시키지를 못하는 花潭의 편견이었다고¹⁰⁾ 비난하고, 바로 그것은 「氣」의 작용이 아니며 「理」의 작용인 것이라고 판정을 하였다.

2

퇴계는 서경덕의 氣一元論的 세계관을 계승 발전시킨 그 제자들까지 일괄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였다. 우선 唯氣哲學의 전개에 철저하였던 蓮坊 李球의 견해와 학설을 여러 측면에서 비판함으로써 퇴계가 성리학의 정통적 입장을 계속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蓮坊 李球는 朴淳 許曄 南彦經과 함께 서경덕의 저명한 제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저술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 학설의 극히 일부분이 퇴계와 율곡의 문집가운데 논변형식을 통하여 소개되어 있다. 또한 寒洲 李震相의 문집속에도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퇴계는 자신의 <答禹景善問目>에서 이구가 「理」를 보는 식견이 미흡하고 분명하지를 못하여 「氣」를 주장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느낌이 든다고 평을 하였다.¹¹⁾ 그리고 퇴계는 이구가 草堂 許曄에게 답한 서간 가운데 林隱 程復心の <太極陰陽圖>를 해설해 준 글 내용을 들어서 하나하나 거기에 비판을 가하였다.

첫째로 이구가 程復心の <太極陰陽圖>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그것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이 圖가 지극히 좋다. 대저 천지가 개벽된 후는

9) 「虛能生氣之虛 若作理字看則無害 但老氏元不識理字 何可遷就爲說耶」(同上)

10) 「手持足行 目視耳聽 花潭但謂氣之妙處 而不歸之於理 固是偏也」(同上)

11) 「蓮坊見理不分明 主張氣太甚 有此差失, 無足怪也」(퇴계집 권32 答禹景善 問目)

모두가 氣이다. 음양과 動靜은 다만 氣일 뿐이다. 氣 위에서 그 理를 미루어 찾을 수가 있을 따름이다. 『공자가 易에 太極이 있다고 하였으니 역시 氣를 먼저 말한 것이며, 子思도 鳶飛戾天하고 魚躍于淵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氣를 먼저 말한 것이다. 만일 氣가 아니라면 비록 聖人이라도 理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¹²⁾

그러나 이에 대하여 퇴계는 이구가 허엽에게 제시한 程復心の <太極陰陽圖> 자체가 원본과 크게 다르며,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구가 「中圈爲氣之失」¹³⁾을 범하고 있다. 여기서 만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이구의 그 설은 더욱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둘째로 이구가 서경덕의 견해를 지지하여 「理」와 「氣」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易의 도리는 既濟卦와 未濟卦뿐이며 坎卦로서 離卦로서 氣뿐이다. 氣는 理가 성한 것이며 理는 氣가 성한 것이며 理는 氣의 오묘한 것이다. 理가 아니면 體가 서지를 앎으며 氣가 아니면 用이 운행하지를 앎는다. 그러므로 모든 仁을 다 들어낸 것은 행하지를 앎는다. 그러므로 모든 仁을 다 들어낸 것은 氣이며 모든 用을 감추어 두는 것은 理이다. 화담선생이 「坎離藏用이 形에 앞서 있다」고 말한 것은 모든 用을 감추어 둠을 밝게 나타낸 설이다. 「流行에 도달할 수 있으면 道가 비로소 전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仁이 들어남을 밝힌 뜻이다.¹⁴⁾

또한 이구가 「心無體用說」을 주장한 대목에 대하여 퇴계는 그가 서경덕으로부터 영향을 잘못 받아 「氣」가 정말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

12) 「此圖極好 夫天地判後 都是氣 陰陽動靜 只是氣 氣上可推尋其理耳…孔子曰 易有太極 亦先言氣也 子思曰 之飛戾天 魚躍于淵 此亦先言氣也 若非氣 雖聖人難言其理也」(同上)

13) 「此圖與程林隱多不同 當是記不 全之做 然以中圈爲氣之失則同而蓮坊大加稱賞何耶」(同上)

14) 「易道只是既濟未濟 坎離只是氣 氣者理之盛也 理者氣之妙也 非理體不立 非氣用不行 是故顯諸仁者氣也 藏諸用者理也 花潭先生曰 坎離藏用有形先 是發明藏諸用之說也 到得流行道始傳 是發明顯諸仁之說也」(同上)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구는 천지사이에 충만해 있는 「氣」를 세계의 始源으로 파악하고 그 다양한 자연의 현상과 사물의 변화를 「氣」의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물질과 법칙의 상호관계를 논한 理氣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서경덕의 견해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끝내 정통적 성리학의 객관적 관념론의 입장에 선 퇴계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퇴계는 一齋 李恒이 서경덕과 그 견해를 같게 하는 氣一元論의 세계관을 반대하고, 그가 주장하는 「理氣爲一物說」과 「性氣不二說」에 대하여 준엄한 비판을 가하였다.

一齋 李恒은 처음부터 「理」의 일차적 근원적 실재성을 부정하고 「理」를 다만 「氣」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법칙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高峰 奇明彦에게 보낸 서간을 통하여 「理氣雖二物而其體一也」라고 밝힌 바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항은 「理」와 「氣」가 비록 둘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體는 본래 하나이다. 대개 하나이다. 대개 一이면서 二이요, 二이면서 一인 것이다라고 역설을 하고, 또한 태극과 兩儀(陰陽)가 혼연히 「一物」이 된다고 보는 자기 견해를 거듭 천명하였다.¹⁵⁾

이와 같은 이항의 주장에 대하여 퇴계가 논평하기를 만일 「理」와 「氣」가 본래부터 하나이었다고 한다면 태극이 바로 음양일 것이므로 어떻게 주자의 이론과 같이 태극이 음양을 생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앞서 퇴계는 「朱子吾師也 亦天下古今之宗師也」라

15) 「易曰 太極生兩儀 蓋兩儀未生之前 兩儀存乎何處 兩儀已生之後 太極之理亦存乎何處 從這裏而深思明辨 則庶見理氣之渾然一物耳…程子曰 博識是玩物喪志 須姑舍博覽群書 而居敬窮理 默思自得而尊性涵養之功久 則理氣雖似二樣 而渾然一物之體 自然見得矣」(一濟遺集 권1 與奇明彦)

고 전제하고, 주자가 평소에 「理」와 「氣」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었으나 둘을 하나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상기시킨 일이 있다.¹⁶⁾

또한 퇴계는 기명언에게 답송한 <論四端七情 第二書別紙> 가운데 이항이 자기주장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의 병은 역시 「理」자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테 기인된다고 지적하였다.¹⁷⁾ 그리고 퇴계는 고금에 걸쳐서 사람들이 학문과 道術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理」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도 있다.¹⁸⁾

특히 퇴계는 이항이 「理」와 「氣」의 관계를 끝내 하나로 볼 것 같으면 「道」와 「器」의 한계도 없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道卽器요, 器卽道라고 하는 편견에 도달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무엇보다 퇴계는 「道」와 「器」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역시 禹景善의 問目에 그가 답하기를 『周易에 一陰一陽을 일러 道라고 하였으나 陰·陽 그것이 바로 道는 아니다. 一陰하고 一陽하는 所以가 理이요 道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항이 주장한 心先動說에 관하여 초당 허엽과의 사이에 서로 수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퇴계는 이항의 心先動說이 他說과 비교하여 볼 때 정밀하고 논리적인 점을 인정할 수가 있다. 다만 주자가 「動處是心」이라고 한 말의 그 뜻을 깊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의 실수이었다고 그에 대한 논평을 정당하게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퇴계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理」자에 대해서 이항이 恣意로 해석을 가하고자 하는 편견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항의 그

16) 「若曰 理氣本一物 則太極卽是兩儀 安有能生者乎…朱子答劉叔文曰 理與氣決是二物 但在物上看 則二物渾然不可分開 各在一處然不害二物之各爲一物也」(퇴계집 권41 非理氣一物辯證)

17) 「一齊公隱居樂志 篤於自信如此 誠可嘉尙 然觀其識趣論議 不能無病 亦在夫過於自信 堅於自用而已」(퇴계집 권16 答奇明彥論四端七情 第2書 別紙)

18) 「古今人學問道術之所以差者 只爲理字難知故耳」(同上)

러한 태도가 바로 그보다 앞서 「理氣一物說」을 주장하였던 明代의 氣哲者 整庵 羅欽純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羅欽純 자신에 대해서도 그가 비록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파악해 보고자하는 노력의 일단이 엿보인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역시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계성을 퇴계가 이미 비판하고 있었다.¹⁹⁾

Ⅲ. 陽明學 排斥

양명학은 선조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학계에 관심을 가져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통적 성리학에 의해서 당초부터 비판을 받고 이단으로 배척당하였기 때문에 그 학문적 영향이 크게 확산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퇴계는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우리 나라 최초의 정통적 성리학자이었다.

퇴계의 그 많은 저술 가운데 특히 <傳習錄論辨><白沙詩教 傳習錄抄 傳因書其後> 등의 논문에 양명학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그의 의도가 잘 표명되어 있다. 그리고 명나라 陳建의 <學菴通辯>에도 역시 퇴계와 동일한 논지의 양명학을 비판하는 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퇴계는 <傳習錄論辯>을 통하여 무엇보다 王陽明이 經典解釋에 있어서 선유들의 정론을 자의로 부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가 「心」을 잘못 이해하는 이른바 「心之病」에 깊이 빠져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진리를 개개의 사물에 대한 공리를 가지고 추구하려고 들지아니하고 오직 「心」에 의해서만 찾으려는, 다시 말해서 객관적 실재인 「理」를 주관적 「心」과 동일시함으로써 그것을 진리판단의 표준을 삼으려고 하는 왕양명의 「心卽理」라는 주장이 잘못된 견해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 「大抵整庵於道 非不窺一斑 只是於大源頭處錯認了…李一齊嘗與李剛而書 論寒 庵之失 剛而寄示來 其所見果未精 其爲說亦多誤」(퇴계집 권17 重答奇明彦 別紙)

퇴계 우선 왕양명의 知行合一說을 반대하였다. 形氣 즉 물질로부터 발하는 「心」(퇴계는 이를 인심이라고 함)은 知行合一이 가능할 수가 있어도 의리에서 발하는 「心」은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그것은 「知先行後」인 것이다. 만일 「道心」에서 출발하는 知行이 역시 합일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학문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겠는가 하고 공박을 가하였다. 거듭 말해서 퇴계는 왕양명의 知行合一說을 다만 감성적 단계에 있어서의 知行合一로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 바로 반사적인 작용이라고 파악한 것이었다. 퇴계는 금수까지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²⁰⁾ 그리고 「道心」으로부터 출발된 知行 즉 이성적 단계에 있어서의 知와 行은 그보다 앞서 학문을 통하여 知를 얻음으로써 만이 그 실천이 반드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퇴계는 또한 <大學>의 해석에 관한 왕양명의 견해와 주장까지도 모두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그 밖에도 퇴계는 정통적인 主知派의 객관적 관념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主意派에 속한 주관적 관념론의 여러 학자들을 역시 이단이라고 배척하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명나라 陳白沙나 왕양명의 학문이 본래 陸象山의 철학사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본심을 중지로 삼은 것이어서 이 모두를 禪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비난하였다.²¹⁾ 그리고 왕양명이 주장하는 논설이 극히 웅변적이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쉬게 현혹시킬 수가 있었다고 경고하였다.²²⁾

한편 퇴계는 원나라 吳草廬 程篁墩 등이 주자와 陸象山의 학설을 절충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 퇴계가 吳草廬의 학문을 일러서 禪家가 頓悟하는 단계에 든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聖學이 그것을 취할 바는 못된다고 지적하고 또한 程篁墩의 학문은 천하를

20) 「若但饑寒而謂之行 則所行者人心耳 非道心也 且痛而知痛 饑寒而知饑寒塗人乞人與禽獸皆能之 若是而可謂之知行 何貴於學問爲哉」(퇴계집 권41 傳習錄論辨)

21) 「凜謹按陳白沙 王陽明之學 皆出於象山 而以本心爲宗 蓋皆禪學也」(퇴계집 권41 白沙詩教 傳習錄抄 傳因書其後)

22) 「但禪學如膏油近則輒汚 陽明又以雄辯濟之 尤易惑人」(퇴계집 권13 與洪應吉)

모두 陸象山의 생각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퇴계는 도처에서 양명학을 반대하고 배척하였다. 그 반대하는 특징은 양명학을 선학 즉 불교적인 주관적 관념론과 동일시하여 모두 이단으로 규정짓고 있는 점이다. 그 자세가 바로 정통적 성리학의 일반적 통념으로 되어 있다.

퇴계의 영향을 받은 西厓 柳成龍 月川 趙穆 등도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각각 陳白沙, 王陽明의 학설을 이단이라고 배척한 바가 있다. 北學論者인 洪大容도 왕양명의 주관적 관념론을 반대하는 이론을 전개시킨 일이 있다. 그는 인식의 원천이 객관세계에 있는 것이며 거기에 인간의 감각기관이 작용함으로써 인식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주자의 견해를 비판하고 정통적 성리학과 대립하는 양명학은 분명히 인의를 해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²³⁾ 이단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이 이씨 왕조에서 결코 공인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東岡 南彦經이 양명학에 관심을 표시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조 때 국난 극복에 한 역할을 담당했던 暹川 崔鳴吉이나 谿谷 張維에 의해서 겨우 그것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17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霞谷 鄭齊斗가 일생을 바쳐 양명학을 대성하였다고 하나 역시 그 연구 업적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IV. 禪學 批判

1

퇴계는 蘇齋 盧守愼이 禪學의 병통에 깊이 몰들어 있다고 비난하고,

23) 「欲排窮理之學 則斥朱說於洪水猛獸之災…使若人者 得君而行其志 則斯文斯也之禍 未知其孰烈於秦也 邪說之陷人 一至於此可勝嘆哉」(퇴계집 권41 白沙詩教傳習錄抄 傳因書其後)

또한 그가 주자의 格物致知說에 대하여 너무 支離하다고 평하는 것이 극히 온당치 못한 자세라고 이를 배척하였다.

노수신은 종종 때 문과에 장원하고 玉堂에서 퇴계와는 親友사였다. 乙巳土禍로 19년간을 順天과 珍島에 謫居하면서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 곳에서 <人心道心辯>과 <夙興夜寐箴 註解>를 저술하고 퇴계와 金麟厚로부터 여러 차례의 서신 왕복을 통하여 의리에 관한 강론을 거듭 받은 바가 있다.

人心 道心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노수신 자신은 처음부터 羅欽純이 「道心體也 至靜之體 不可見 故曰微 人心用也 至變之用 不可測 故曰危」라고 주장한 體用說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의 <人心道心辯>이 발표되자 李恒 金千溢 南彦經 등이 이를 크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수신은 자기 견해를 조금도 수정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노수신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기명언에게 보낸 서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蘇齋를 일러서 禪을 매우 좋아한다고 평한다 하더니 虛言이 아닌 것 같다. 그가 窮理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곧장 지름 길로 꺾어 들어 가려하니 이 더욱 큰 근심거리다』라고 살망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人心 道心에 관한 노수신의 해석이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해 준 말이었다.

한편 노수신이 經筵에서 일찍이 書經을 강론하던 그 시기에는 人心 道心에 관한 그의 해석이 주자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었다고도 한다. 진도로 그가 유배당한 후로 불안과 우수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세계관의 전환과 함께 禪에 의존하여 안심을 얻으려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⁴⁾

노수신이 <夙興夜寐箴 註解>를 탈고하고 퇴계와 김인후에게 그 평을 청하였을 때 특히 퇴계는 그 중에 「聚其光靈 絕其思念」이라고 말한 여덟 글자가 禪學에 근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권고하였다. 다시 말해서 「聚其光靈」은 선학의 一心妙用이 明明 朗朗하

24) 劉明鍾著 韓國哲學史(日新社) 179면 참조.

여 一個 不可思議底라고 한데서 따온 것이며 또한 見性明心の 禪語와도 가깝다. 그리고 「絶其思念」하라는 말은 禪의 心外無法에서 따온 것이다. 無念無想으로 일체의 外境을 遮障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 역시 禪語에 가깝다고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김인후도 여기서 퇴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노수신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2

河西 金麟厚는 퇴계와 학문적으로 깊은 교류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리학의 정통성을 고수하고 주자와 세계관을 달리하는 모든 철학사상을 이단이라고 배척한 점에 있어서 역시 그는 퇴계와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서경덕과 조식 이항등이 주장하는 학설과 맞서서 이를 극렬 반대하였다. 반대파와 논전을 벌인 기록들을 통하여 그의 철학사상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우선 김인후는 서경덕을 비롯한 氣一元論的 철학사조에 대항하고 특히 이항의 「太極陰陽一物說」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氣」에 대한 「理」의 일차성 절대성만을 강조하였다.²⁵⁾ 主理이외의 학설은 모두 이단시하고 배척하였다. 또한 주관적 개념론의 입장에 선 禪學과 陸·王學도 이단이라고 반대하였다.

김인후는 서경덕의 세계관을 가리켜 불교의 이른바 「頓悟」 다시 말해서 일체의 잡념을 버림으로써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편견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陸象山에 대해서도 그가 불교의 「頓悟」만을 소중히 함으로써 仁學 즉 유교에 큰 해악을 끼쳐왔다고 지적하였다.²⁶⁾

김인후는 성리학의 이해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스런 자세를 취하였던 노수신에 대해서 까지도 그의 경전주해에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였다고

25) 「天地之間 無非是理也」(河書集 권11 與人友書)

26) 河書集 附錄 卷一, 行狀 및 神道碑銘 참조.

경고하고 그것을 취소하라고 권한 바가 있다. 그러나 노수신이 이에 맞서서 『禪學을 배울 사람도 없는데 겹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박을 가하였다. 또한 김인후는 『도적이 없다고하여 짓지 않는 개를 기를 것이며, 쥐가 없다고하여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를 기르겠는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거듭 강조하였으나 노수신은 끝내 「學然後有流 不學又何流」라고 하는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아니하였다.

이 논쟁에 관하여 퇴계는 김인후와 같은 처지에서 노수신을 비판하고 있다. 『異學이 있고 없는 것을 어찌 학자의 유무를 가지고 말하겠는가, 성인의 學徒가 아니라면 바로 楊朱나 黑翟의 무리일 것이므로 여기에는 중립이라든가 조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자신의 말 가운데 단 한마디라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禪學者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도 이미 자기는 금수나 이적의 경지에 빠진 것이 된다. 程子の 문인이 程子를 배웠으나 그후 禪學으로 흐른자가 많고 羅整庵도 程朱를 존경하였으나 意見이 그것과는 상반하여 결국은 禪學에 빠져든 것이었으므로 어찌 배운 뒤에라야 거기에 빠져든다고 할 수 있겠는가』²⁷⁾라고 강경히 말하고 있다.

퇴계는 역시 김인후와 함께 철저히 성리학의 정통적 입장을 자부함으로써 거기에 중립이라든가 조화를 일절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氣一元論을 포함하는 비성리학적 계통의 모든 학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이를 배척한 것이었다.

V. 맺는 말

일반적으로 전통적 권위를 확인하고 기존질서를 옹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명분이나 그 정치적 기반을 일러 정통이라 하며, 그것과 별개의 가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집

27) 河書集 권11, 與人友書 別紙 참조.

단이나 혹은 그와 같은 견해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한다.

중국 철학사에서는 특히 孔孟의 유교사상이 정통의 입장이었으며, 이를 비판하고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隱者들과 楊朱와 墨翟의 이론들이 이단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통치체제에 비협조적이었거나 아니면 민중의 지지를 배경으로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해 갔었다. 맹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통을 수호하기 위한 이단 배척을 자기 사명으로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씨 왕조에 있어서 퇴계가 반대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었던 이단은 정통적 성리학과 견해를 달리하는 서경덕일파의 氣一元論的 세계관이었으며 또한 불교의 주관적 관념론과도 서로 통하는 양명학파가 그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서경덕이 주장하는 「虛卽氣」의 이론은 바로 몰락귀족의 반사회적 은일주의에 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전망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양명학파의 「心卽理」 사상은 불교적인 영향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존질서를 위태롭게 할 서민의 저항의식과 자유사상을 반영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퇴계가 단호히 이를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